

문 의	특허심사2국 자동차심사과	과 장 김성남 042-481-5678 사무관 정기현 042-481-8140
	2016년 5월 27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5월 26일(목)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미래형 자동차 민·관 특허협력 네트워크 본격 시동

- 미래자동차 IP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산업 IP협의회’ 발족 -

최근 자동차 기술은 ‘친환경’과 ‘고안전’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계 중심에서 자율주행 등 IT, 친환경 신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자동차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삼성, google 등 IT업체들이 자동차 시장으로 진출함에 따라, 기존 자동차 업체와 IT 등 타산업간 핵심기술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특허괴물인 NPE에 의한 특허 공세의 주요 표적도 IT 업체 중심에서 자동차 업체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산업은 미래형 자동차 분야의 첨단 기술 및 특허 확보, 선제적인 특허분쟁 대응전략 수립 등을 통한 지식 재산권(IP)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5월27일(금) 오후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완성차, 주요 부품업체, 학계, 연구계 및 업종단체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동차산업 IP 협의회”를 발족하여 민-관 특허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는 현대자동차와 주요 부품사,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및 변리사 등 민간 전문가와 특허청 자동차 관련 전문 심사관들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완성차 및 중소 부품회사들로 그 참여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자동차 분야 첨단 신기술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IP 현안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산·학·연·관 협력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특허청은 국내 기업이 특허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특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허컨설팅 등 IP 인식 제고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 출범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미래 자동차의 안전 기준과 연동된 표준화 전략 ▲최근 중국의 자동차 관련 소송 및 지재권 동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개최될 예정이며, 협의회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지식을 특허출원건의 심사 과정에 활용하는 공중심사 추진 방향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 이상철 특허심사2국장은 “미래형 자동차산업은 국가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앞으로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기업간 기술 경쟁 및 특허분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며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자동차 산업에 경쟁력을 갖춘 IP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특허청과 기업, 전문가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자동차산업 IP협의회 발족 및 간담회 개최

<붙임 2> 자동차 산업 특허분쟁 동향

□ 개요

- 廳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협의회 설립, 향후 활동계획 등을 보고하고, 협의회 발족방향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소통 및 공중심사를 실시하고, 주요 지재산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의견 수렴
 - * 개정된 특허법, 무효심판 소송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수렴
- 국내외 지재산 이슈 및 미래 자동차 기술도래에 대한 IP 관점의 대응 전략 등을 상호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교류의 場 마련

□ 행사 계획

- (일시 및 장소) 2016. 5. 27.(금),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
- (공중심사) 변속기, 안전장치, 공조장치, 연료전지, 자율주행장치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공중심사 실시
- (세미나) 미래형 자동차 안전기준 현황 및 지재산, 자동차 관련 최근 중국 전리동향 및 자동차 소송 사례 등
- (현장소통 간담회) 자동차 산업 IP 협의회 운영방향, 향후 활동 계획, 자동차 산업 IP경쟁력 제고 방안 등 도출
- 세부계획

일 시	세부 내용	비 고
13:00 ~ 14:00	분야별 자동차특허기술 공중심사	심사관
14:00 ~ 14:15	Coffee Break	
14:15 ~ 14:20	내외빈 소개	사회자
14:20 ~ 14:25	축사	심사2국장
14:25 ~ 14:30	환영사	현대차 신언율이사
14:30 ~ 15:00	미래형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지재산	이재완 박사 (자동차성능시험연구원)
15:00 ~ 15:30	자동차 관련 중국 전리 최근 동향	金鮮英 변리사 (北京銀龍知財權事務所)
15:30 ~ 15:50	기념촬영 및 Coffee Break	
15:50 ~ 16:20	개정 특허법, 무효심판 소송제도 개선방안 설명	특허청
16:20 ~ 17:00	자동차 산업 IP협의회 운영방안 토론	참석자
17:00	폐회	

붙임2

자동차 산업 특허분쟁 동향 및 분석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층분석 보고서, 2014. 03. 07)

□ 최근 자동차 기술의 NPE 소송 제기건 급증

<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대상 NPE들의 소송건수 변화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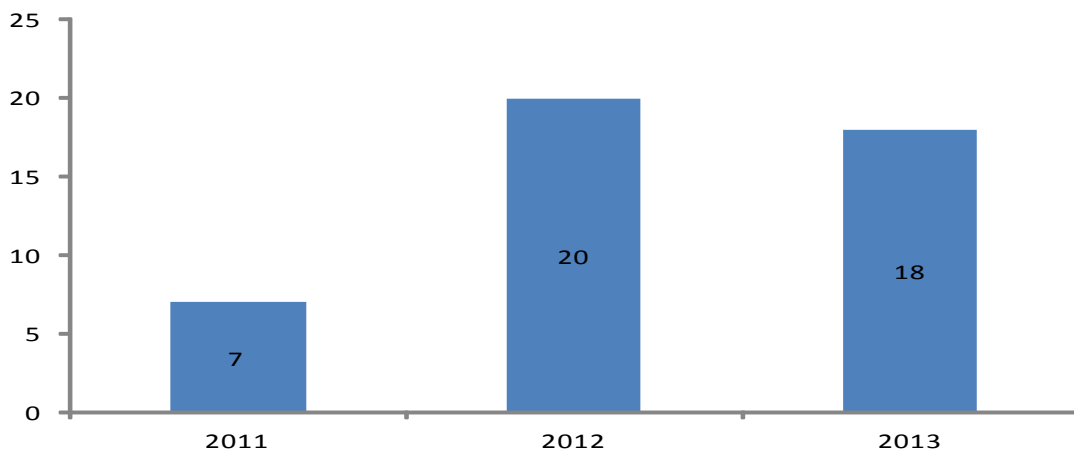
업체	산업분야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1.	합계
H 社		4	3	3	2	16	24	52
	기계소재	2	1	2	2	5	8	20
	기타산업	0	0	0	0	3	0	3
	장치산업	0	0	0	0	3	6	9
	전기전자	1	0	0	0	3	6	10
	정보통신	1	2	1	0	2	4	10
K 社		1	0	1	2	1	22	27
	기계소재	0	0	1	2	1	0	4
	기타산업	0	0	0	0	0	6	6
	장치산업	0	0	0	0	0	9	9
	전기전자	1	0	0	0	0	4	5
	정보통신	0	0	0	0	0	3	3

□ 해외 주요 완성차 업체의 최근 특허분쟁 현황

구분	Volkswagen	Toyota	GM	Daimler
2011	13	28	6	7
2012	6	26	18	0
2013	5	16	15	3
계	24	70	39	10

□ 현대차는 최근 3년간 45건의 특허와 관련된 특허분쟁이 발생

< Hyundai Motor社의 최근('11~'13) 분쟁특허건수 추이 >



○ 현대자동차의 최근 주요 분쟁 대상은 도요타와 마찬가지로 AVS*임

* 최근 도요타, 혼다자동차, BMW, Mercedes-Benz, Subaru 등 총 7개의 자동차 메이커를 제소한 상태임

- 15건의 특허를 통해 분쟁 중인 AVS는 차량 진단 시스템을 비롯해 탑승자 중량 감지 및 보호 시스템 분야의 특허 침해를 주장

< 현대차의 주요 분쟁 대상 및 분쟁 기술분야 >

주요 분쟁 대상	기술 분야	분쟁 특허수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차량 진단 시스템, 탑승자 중량 감지 및 보호 시스템	15
Beacon Navigation GmbH	내비게이션	5
Norman IP Holdings, LLC	프로세서간 통신 장치 등	5
Paice LLC, The Abell Foundation, Inc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엔진 및 모터 제어장치	3
Autoliv ASP, Inc	에어백 쿠션	2
Delaware Radio Technologies LLC, Wyncomm LLC	아날로그/디지털 통신기술	2
Diamond Coating Technologies, LLC	에어컨 압축기, 전기 절삭기	2
Joao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s LLC	차량 원격 제어장치	2
Magna Electronics, Inc	차량 비전 시스템	2